

석유화학, 2014년 수출 4%대 증가

무역협회, IT제품이 수출신장 견인 지속 ... 원화 강세 대안마련 촉구

2014년 수출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, 원화 평가절상, 엔화약세 지속 등 악재 속에서도 신장할 것으로 예상됐다.

주요 품목별 수출 전망
단위: 억달러



한국무역협회는 2014년 수출이 2013년에 비해 6.4% 증가한 5980억달러, 수입은 9.1% 늘어난 5650억달러로 33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.

무역협회는 “미국·EU(유럽연합) 등 주요 국가의 경기회복이 수출·입 증가로 이어질 것”이라며 “2013년과 마찬가지로 IT제품이 수출 증가를 견인할 것”이라고 예상했다.

반도체는 메모리제품 가격안정, 해외시장 점유율 상승, 모바일용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6.8%, 디스플레이도 OLED(Organic Light Emitting Diode) 시장 확대로 5.2% 신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이밖에 자동차 4.5%, 석유화학 4.1%, 가전 3.6%, 자동차부품 3.1%, 섬유 3.2% 등 전통적인 수출품목들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.

그러나 무역협회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, 환율 변동폭 확대, 엔저에 따른 일본기업의 가격경쟁력 향상 등이 2014년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.

무역협회 오상봉 국제무역연구원장은 “2014년 엔화 및 신흥국 통화에 비해 원화 강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”며 “정부의 선제적인 지원과 수출기업들의 기술·품질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12/04>